

세계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농협**

**2025  
APEC  
INCHEON**  
 국제회의 개최지 유구명  
 세계 최대 비즈니스 허브  
 지속 가능한 스마트 마리도시  
 인천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제 1273 호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 김정은 방러에 군 서열 1~2위 수행 위성·잠수함·포탄담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연방을 방문하기 위해 9월 10일 오후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 리병철·박정천 등 군부 핵심 총출동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군부 실세들이 대거 수행한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10일 오후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며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수행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수행단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함께 군 서열 1~2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이 포함됐다.

또 박태성 당 비서, 김명식 해군사령관,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도 수행단으로 떠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눈의될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 거래와 관련해 주목되는 인물들이다.

박태성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위해 설치한 국가비상설우주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태성과 해군 수장 김명식은 북한이 무기 거래로 행길 수 있는 위성과 핵 추진 잠수함 기술 확보의 핵심 관계자다.

아울러 북러 간 연합훈련이 이뤄지면 해군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춘룡은 북한이 반대급부로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재래식 포탄 등의 생산과 관련이 있다. 그는 김정은의 최근 군수공장

시찰 때 수행했다.

리병철과 박정천 등 군부 최고위층은 물론 무기 거래 관련 주요 보직자들이 동행한 것은 이번 김정은 방러의 군사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낸다고 풀이된다.

이외에 김광혁 공군사령관, 오수용 당 비서, 박훈 내각부총리 등도 수행단에 들어갔다.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러시아로 떠나는 김 위원장을 환송했다. 김 위원장과 수행단은 출발 전 레드카펫을 따라 도열한 간부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김정은 친동생 김여정도 사진상에선 식별되지만, 김정은을 비롯해 환송받는 인사들과는 다른 위치에서 있어서 동행 여부가 불분명하다.

통신은 이날도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은 외부로 송출되는 통신뿐 아니라 북한 내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출발 소식을 실으며 북러 정상회담을 대내외에 알렸다.

북한과 러시아는 전날 저녁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의해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동시에 발표했다.

/ 조규현 기자

### 이종섭 국방장관 사의 표명한 듯…“안보 공백 등 우려해 고민”

야권으로부터 탄핵 추진 압박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장관이 안보 공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의 표명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논의 등과 관련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업무 정지 등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거취를 고



이종섭 국방장관

흉상 철거 논란 등으로 국회에서 질타당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후임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장관은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장관에 취임했다. / 송원기 기자

###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중대 범죄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아”

12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2차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 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21분께 수원지검 후문 앞 도로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하리 숙여 인사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검찰청사로 들어와 취재진 앞에서 입장문을 밝혔다.

그는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주제를 바꿔가며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찰 수십명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 없다”며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쟁기고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조금 더 주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방을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을 그룹 회장이 2019



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핑계 삼아 도지사 방북이 성사되도록 스마트팜 지원, 15억원 상당의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쌀 10만톤 추가 지원 등 대북 지원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지사 방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상당수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을 그룹 회장이 부담하게 했다는 것이 이 대표가 받는 제3자뇌물혐의의 골자다. / 민혁수 기자

# 대한민국 으랏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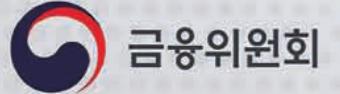
# 칙

### 캠코와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도전하는 기업에겐 **기회 도착!** 부채로 힘든 소상공인에겐 **희망 안착!**

활용도 낮은 공공자산엔 **가치 창출!**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힘 모아 돋겠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http://www.kamco.or.kr) 문의 1588-3570

# 김만배, 인터뷰선 “석열이형” 두달뒤 “尹 몰랐다”

석열이형→직접 몰라→조미료 친 것…오락가락 발언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2021년 9월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인터뷰하고 두 달여 지나 검찰 조사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석열이 형” 등으로 칭하며 친분을 과시한 것과는 정반대 태도다.

김씨의 오락가락하는 발언 속에서 발언의 진위를 밝히고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의 의도와 공모관계를 규명해 내느냐가 검찰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2월3일 검찰 조사에서 2011년 2월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해준 경위를 설명했다.

‘당시 조우형을 조사한 사람이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 고 남우, 조우형에게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김씨는 “제가 먼저 말해준 사실은 없다. 조씨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찾아와 주임 검사는 박OO, 과장은 윤석열이라고 했다”며 “그래서 제가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겠다고 조씨에게 추천해줬고 선임을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검사가 ‘당시 윤석열 중수2과장은 직접 알고 있었느냐’고 물자 김씨는 “저는 그 당시에 윤석열 과장을 몰랐다”고 답했다.

또 김홍일·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조씨를 잘 봐달라는 부탁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변호사 소개를 잘해준 것은 맞는데 검찰에 직접 사건을 청탁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씨의 이런 진술은 두달 전 신씨에게 한 말과는 차



이 있다. 인터뷰에서 김씨는 수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찾아온 조씨에게 “내가 법조 오래 (취재한) 기자인데 내가 대검 가서, 내가 다 안다 솔직히. 있는데 박OO야, (조우형이) 내 동생이니까 해줘라’하면 어떻게 되겠나? 내가 돈 받고 해주는지 알지. ‘석열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려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그 당시 윤석열이 과장. 박OO가 주임검사야.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기”라며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한 거지”라고 했다.

신씨에게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검찰의 ‘혈관’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수사 무마에 도움을 준 것처럼 말했지만 검찰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단순히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소개해줬을 뿐이라고 한 것이다.

이른바 ‘커피 발언’도 인터뷰와 검찰 조사 때 설명은 차이가 있다.

김씨는 인터뷰에서는 “박영수가 (조우형 사건) 진단하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

그래”라며 박 전 특검으로부터 직접 커피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조씨가 검찰에 출석해 검찰 직원으로부터 커피를 받았다고 했다.

반면 검찰 조사에서는 ‘조우형에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박영수 변호사 밑에 있는 A변호사로부터 말을 듣고 협조하고 편하게 조사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조우형에게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다.

‘커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최대한 자신이 전한 말의 의미를 축소한 것으로 읽힌다.

김씨는 신씨와의 인터뷰가 뉴스타파에 보도된 지 1년 여가 지난 올해 6월 검찰 조사에서는 “신씨에게 선 사람처럼 보이려고 허세를 부린 것이다. 조미료를 친 것”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내용이 거짓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사적 대화에서의 허풍’으로 규정, 보도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김씨가 국면 전환을 위해 대선 직전 보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의도적으로 신씨와 허위 사실을 인터뷰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인터뷰와 보도 시점 전후 김씨와 연락한 인물들을 쟁으며 배후 세력까지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대선 전 대장동 수사팀이 뉴스타파 보도 전인 2021년 말 수사 무마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보도 확산을 방지했다는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이영찬 기자

## 與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구형에만 6년”…김명수 사법부 비판

“재판 지연 넘어 사실상 불의 방조…‘대선공작’ 사건도 반면교사 삼아야”

국민의힘은 12일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연루자들에 대해 조만기 개입한 흐름의 선거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이 최근에야 실행을 구형한 것을 두고 “김명수 사법부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안을 고리로 ‘대선 공작 계획’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윤재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으

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흐름의 선거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이 전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재판을 이렇게 질질 끄는 사이에 송철호 울산시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지난해 지방선거에 재출마까지 했다. 함께 재판받는 민주당 의원들도 내년

그는 “김명수 사법부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대통령 친구가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사실,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청와대의 비호 아래 상대 후보를 찍어누르는 죄악의 반민주 선거를 자행한 것”이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되고 1심 구형이 내려지는 데에만 무려 6년이 걸렸다”며 “이 정도면 재판 지연 수준을 넘어 사법부가 사실상 불의를 방조해 온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른바 친문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이 올린 수차례의 기소 의견을 끊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에게 사건을 맡기며 재판은 하세월로 흐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대선공작 사건 또한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병훈 기자

## “2023 필리핀-한국 Trade Summit”

강원도 및 한국 우수 중소기업 초청



필리핀 한인 경제인총연합회는

강원도 및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들을 초청하여  
필리핀 상공회의소 인사들과의 교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Makati sports club (Ayala hall)

• 일시 : 2023 9월 23일 오후 5시

- 문의 - 회장 : 박복희 0917 823 6126  
사무국 : 심재원 0917 843 1852

필리핀 한인경제인총연합회  
UNITED KOREAN BUSINESSMEN ASSOCIATION

‘필리핀 한인 경제인총연합회’(회장 박복희)는 강원도 및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들을 초청하여, 필리핀 상공회의소 인사들과의 교류를 진행하고자 한다.

“2023 필리핀-한국 Trade Summit”라는 주제로 오는 9월 23일 오후 5시 필리핀 북부 루손 섬의 마카티(Makati sports club)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 송원기 기자

## 정부청사 구내식당, ‘수요일은 우리 수산물 먹는 날’ 운영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3일

부터 청사 내 구내식당에서 국내 수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제공하는 ‘수(水)요일엔 우리 수(水)산물 먹는 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산물 메뉴는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에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4대 정부 청사의 17개 구내식당에

서 점심으로 제공된다.

수산물은 우럭, 명게, 전복, 꺽게, 장어, 고등어 등 국민 선호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구성된다. 메뉴는 짙은 쟁이 선호하는 푸팟퐁 커리, 해물 파스타 등과 중장년층

이 선호하는 오징어물회, 명게비빔밥 등

/ 윤지호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 “내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 면담서 ‘인민재판식 훈육하지 말고 아이에게 사과’ 요청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소문 중 잘 못된 내용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이 학부모는 악성 민원 주동자로 낙인찍힌 것에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누리꾼 사이에선 앞서 대전 교사노조가 공개한 사망 교사 갑질 사례가 사실이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고 “2019년 1학기 초부터 아이의 행동이 이상했다”며 “2학기가 끝나갈 무렵 턱장애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아이가 교장실에 갔더라”며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선생님이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 사과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교사가 학생들 앞에 아이를 훌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무섭고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어도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 하셨고, 교장실로 보냈다”며 “제가 요청해 교장, 교감, 고인이 되신 선생님까지 다 같이 면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숨진 교사에게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지양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아이를 일찌 등교시킬 테니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담에 앞서 선생님께 아이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에게도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지도했는데, 선생님은 면담 다음 날부터 학기가 끝나는 내내 병가를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생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했다”며 “학폭위를 열어 선생님 담임 배제와 아이와 다른 층 배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학폭위는 마무리됐고, A씨는 숨진 교사가 지난해 아들의 옆 교실에 배정되자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 외 개인적인 연락이나 면담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반

말하거나, 퇴근길에 기다렸다 괴롭히거나, 길거리에 못 돌아다니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장문 공개 1시간도 안 돼 누리꾼 항의가 쇄도하자 게시글은 곧 사라졌다. A씨는 그러나 곧이어 다시 추가 글을 올려 “내가 삭제하지 않았다. 왜 삭제됐는지 모르겠다. 뺨 내용은 싸우던 것이 아니고 놀다 그런 것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없이 제가 쓴 것이고, 댓글을 고소하려는 의도로 쓴 글도 아니고 악플은 이해하고 있다.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이 많아 그걸 표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본인만 이게 감질인지 모른다”, “불쌍한 우리 선생님”, “악성 민원이 사실이었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해당 교사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를 뒤인 지난 7일 숨졌다. 이후 교사노조·동료 교사·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교사가 지난 4년간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을 향한 날 선 반응과 개인정보 노출이 지속되고 있다.

/ 차현우 기자



우리 해역 방사능 지표 설명하는 박성훈 해수부 차관

##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우려한 만큼 수산물 소비 위축 없어”

정부는 지난달 24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우려한 만큼의 소비 위축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힌 데 이어 “방류 직후인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대형마트 3사 매출액은 전주 대비 11.8%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개최하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은 평소보다 손님이 더 많아 전주 대비 소매점은 17.3%, 식당은 3.5% 매출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노량진·가락·구리 도매시장 내 판매장 부산물 배출량 역시 전주 대비 3.1%, 작년 대비 9.2% 각각 증가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한식 해산물 전문점, 일식 해산물 전문점, 초밥집 등 수

산외식업 1천개소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같은 기간 이들 업체의 매출액은 전주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횟집 100개소는 전주 대비 매출액 변동이 없다고 응답했다.

박 차관은 “수산물 소비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전날 오염수 1차 방류분 7천800t를 모두 바다에 흘려보냈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24일 오후 1시 3분 방류를 시작해 지난 10일 오후 2시 52분에 ‘K4 텹크’(방류 직전 텹크)에서 이송라인으로 오염수를 이송하는 작업을 중지했고, 전날 낮 12시 15분까지 이송라인에 남아 있던 물을 씻어냈다.

/ 이승민 기자

##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들 의견진술 듣기로…“중징계 전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들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12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9’, MBC TV ‘MBC 뉴스데스크’, SBS TV ‘SBS 8 뉴스’,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해 모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안건들 심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소위원장, 황성욱·허연희 위원만 참여했고 야권 추천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불참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 해 3월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이 파일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관한 김씨의 주장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뉴취에서 김씨는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해당 파일을 뉴스타파에 건넸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면서 조작 보도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당시 뉴스타파 보도 후 KBS, MBC, SBS, YTN, JTBC 등 다수 방송사가 해당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인용 보도해 문제를 냈다.

류희림 소위원장과 허연희 위원은 특히

MBC, YTN에 대해 “네 꼭지나 방송하고, 표현도 단정적으로 했다. 결과적으로 이 녹취가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집중적으로 보도 했다”고 비판했다.

/ 박정호 기자

##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이육사의 시, 교목 중에서〉

세상에는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어느 시인과  
그 뜻을 함께했던 어느 기업가처럼요  
국민을 아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려갑니다



KYOBOT 교보생명

##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 6대 0으로 이사회 통과

KBS 이사회가 12일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KBS 이사회 관계자는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안을 표결한 결과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해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야권 인사 5명(이상요·김찬태·류일형·정재원·조숙현)은 김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지난달 말 해임안이 상정될 당시 해임 사유는 ▲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주락 ▲ 수신료 분리징



김의철 KBS 사장

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

KBS 이사회는 야권 우세에서 여권 우세로 구도가 역전되자 8월부터 김 사장 해임을 논의했다.

당초 여권 4대 야권 7의 구도였지만,

야권 인사인 윤석년 이사와 남영진 이사장이 각각 해임되고 빙자리에 여권 인사인 서기석 이사장과 황근 이사가 들어서 여권 6대 야권 5로 뒤집혔다.

여권 이사들은 지난달 28일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정기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안건을 상정시켰다.

이달 6일과 11일에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 해임을 둘러싸고 비공개 토론을 벌였으나 여권 이사들과 야권 이사들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 사장의 해임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확정된다.

/ 김유정 기자

## 태국서 두목 죽이고 필로폰 2kg 숨겨 한국 온 미국인 조직원



경찰이 야산에 은닉된 마약을 수거하는 장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태국에서 마약조직에 가담했다 두목을 살해한 뒤 수십억원어치의 필로폰을 숨겨 한국에 들어온 미국인 조직원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인 A(29)씨는 지난 8월 2일 관광객인 것처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진공 포장된 필로폰 1.95kg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고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는 2015년 11월 태국에서 미약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이원 다툼으로 조직 두목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7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내 유통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유통책과 거래하려 나온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국내 유통책 6명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국내에서 합성대마 3천800ml를 제조한 베트남인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유통책 중 한 명은 야산에 묻어 두고 찾아가게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우편함 등에 마약을 넣어 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기준의 이른바 ‘던지기’ 수법에서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야산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신 마약범죄수사대 1계장은 “마약 구매자가 ‘던지기’ 된 마약을 찾으려 갈 때 자신이 구매한 것이 아닌 다른 마약도 인근에 있을 것을 알고 주변을 살살이 뒤져 찾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책들이 국내에 판매한 마약은 필로폰 310g과 합성대마 약 1천355ml, 대마 87g이었다.

경찰은 A씨와 국내 유통책들에게서 약 7만6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약 76억 원 상당의 필로폰 2.3kg을 압수했다. 또한 시가 3억4천만원 상당의 합성대마 1천355ml도 압수됐다.

또한 A씨에게 필로폰 밀수를 지시한 중국인 총책 B(29)씨와 밀수를 도운 미국인 공범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 권정석 기자

## 양향자 “이재명 만나시라”, 김기현 “그런 방식엔 근본적 고민”



12일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에서 김기현 대표가 한국의희망 양향자 공동대표를 만나고 있다.

신당인 ‘한국의희망’ 양향자 공동대표가 12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14일째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을 권유했지만 김 대표는 이를 사실상 거절했다. 양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창당 인사차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로 김 대표를 예방했다.

그는 김 대표에게 “지금 행정부 강자나

입법부 강자는 약자나 소수의 말을 듣지도, 반영하지도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정면으로 충돌하려 한다”며 “보는 국민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나서야 할 때다. 김 대표님이 당장 이 대표님을 만나주시기 바란

### 梁, ‘한국의희망’ 창당 인사차 금 예방

다”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만나서 들어달라. 그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회에서는 야당이 강자고 우리가 약자다.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많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켜버리고 국정과제 현안을 무작정 발목잡기하고 있어서 국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에게 비공개로도 만나고 공개 TV 토론회 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 만남이 안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 제가 만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단식하고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 고민이 있다”며 “이 대표를 찾아갈 뜻이 없음을 밝혔다.

김 대표는 양 대표에 대해선 “성공스토리로 많이 알려진 분이고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정치인”이라며 “같은 정치하는 입장에서 양향자 같은 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우리 당에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덧담했다.

비공개 환담에서 양 대표는 김 대표에게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과 관련, “향후 그런 일을 할 때는 충분하게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뒤 정책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우려를 전달했다고 양 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양 대표는 김 대표 예방 직후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 천막으로 이재명 대표를 찾아갔으나, 이 대표가 자리에 없어 만남은 불발됐다. / 민성호 기자



선관위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입장하는 정승운 권익위 부위원장

### 권익위, 18일부터 3개월간 국회의원 코인 특별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사실상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정승운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본격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이 조사단장을 맡은 특별조사단에는 전문조사관 약 30명이 투입된다. 조사 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이다.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에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야만 세부 조사를 할 수 있다.

앞서 이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낸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속 의원들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양식에 맞춰 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 권도훈 기자

### 민주, 與 태영호 징계 추진

#### “이재명 단식 중 행패, 묵과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와 항의하며 소란을 야기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조만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송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제1야당을 적대세력으로 비난하고, 단식 중인 야당을 찾아 행패와 소란을

하고 갔다”면서 “태 의원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징계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또 “김기현 대표 막말이 점점 도가 지나치고 있다”면서 “두 분(김 대표와 태 의원) 말과 행동에 민주주의나 의회주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태 의원 징계안 제출은 신속하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오늘 바로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본청 앞에 설

치된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 천막을 찾아와 이 대표와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승강기가 벌어지며 소란이 일었다.

전날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자신에게 ‘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한 항의였다.

당시 태 의원은 이 대표에게 “어떻게 이런 말(북한에서 온 쓰레기)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나”라며 “대표께서 책임지고 박 의원을 출당시키고, 의원직을 박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최진석 기자

권익위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부 조사를 할 수 있다.

앞서 이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낸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속 의원들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양식에 맞춰 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 권도훈 기자

### 제주은행



나눔을 실천한 제주의 여성 대표 CEO, 김만덕

#예금과목 : 정기적금(자주적립식)

#가입대상자 :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가입금액 : 월 1천원 이상 ~ 1백만원 이하

1인 1계좌

영업점, 비대면채널 - JBANK, 모바일웹 신규 가입 가능

#이자율 12개월, 24개월

23.03.16, 현재(세전)

계약기간	12개월	24개월
기본이율	연 3.80%	연 4.00%
기본이율 + 청고 우대이율	연 5.30% (우대이율 최고 1.5%)	연 5.50% (우대이율 최고 1.5%)
※ 예금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을 적용		

#우대이자율 아래 1, 2, 3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고 연 1.50% 우대

(단, 예금기간 만기 전 종료 해제한 계좌에 대하여 우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기부금 출연 신청 고객 1.0% 우대

적금 만기시 새금 납부 후 이자의 3.0%를 (자)김만덕재단으로 기부금 출연 신청한 고객 (단, 중도해지 예금인 경우 기부금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2. 김만덕나눔 적금 추천인 (1인이 한하여 적용, 개인고객에 한함) 0.3% 우대

신규 가입시 제공하는 추천인 번호를 타인이 본 상품 가입시 입력할 경우 입력자와 피추천인 각각 우대되며 추천인 번호 입력 우대 적용 가능 기간은 계좌해지 전까지

3. 미성년자, 고령자 0.2% 우대

이 적금 가입 고객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의 원금 및 저자 지급시기는 만기일자(납입일)으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지급하여,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 이용보다 낮은 중도해지금이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개인 및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금이 인상·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증명서 발급 당일 및 계좌에 압류가압류 등 법적 지급제한조치, 철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금이 제한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은행 홈페이지(www.e-jejubank.com) 또는 스마트금융센터(1588-00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회 제2023-02-17호(심의일자 2023.03.31, 유효기간 2024.12.31)

### 文 전 대통령, ‘文 부친 친일파’ 발언 박민식 보훈장관 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로 지칭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고소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문자 메시지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이 아무 근거 없이 문 전 대통령 부친에 대해 ‘친일을 했다’고 매도한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가리기 위해 전임 대통령 부친까지 정치적으로 악

용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의원은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온 당일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라며 문 전 대통령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김현중 기자

### 국방부 “김정은, 군 인사 다수 대동…무기거래 예의주시”

#### 통일부 당국자 “수행단 구성, 위성기술·노동자송출 논의 우려”



브리핑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기술 확보의 핵심 관계자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외에도 또 다른 일정을 함께할 것으로 보이는 질문에 “동방경제포럼(EEF)이 개최되는 것을 고려할 때 그것과 연계된 일정이 있지 않겠느냐”며 “나머지 사안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한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이르면 이날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10일 오후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며 “당과 정부, 무력 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수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수행단에 박훈 내각 부총리와 한광상 경공업부장관 포함된 것은 북한 노동자 송출 논의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특히 박훈 부총리는 건설을 담당하고 있어 노동자 송출 논의가 우려된다”며 “한광상 경공업부장관의 경우도 노동자 송출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교역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 당국자는 2019년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 날짜를 12~13일로 예상했다.

2019년 4월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에 이어 만찬까지 함께했다.

/ 고성준 기자

#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부산 돌려차기 보고 범행 계획”

검찰, 구속기소…휴대전화에 ‘용기 있는 자가 미녀 차지’ 메모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12일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이날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끈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이를 뒤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관이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순간에도 갈증이 난다면 물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무직으로 게임커뮤니티에 짧은 게시글을 쓰는 것 외에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등 사회성이 결여된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최윤종에 대한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에서는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인지적 결함

은 없고, 자기 조절력과 충동 통제가 저하된 상태에서 원초적인 욕구와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고자 욕구 충족 방식으로 행동화한 것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윤종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도 발견됐다.

또 최윤종은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읽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윤종은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 없는 곳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최윤종은 4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올해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사고, 장기간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한 뒤 여러 곳을 범행 장소 후보지로 정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범행 장소도 후보지 중 한 곳이었다.

최윤종은 범행 장소가 있던 등산로를 수십회 답시했고, 범행 전 6일간 두 차례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 범죄, 모방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함과 동시에 유족의 형사 절차상 권리보장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송진영 기자

## JMS 2인자 권력 막강 비판한 목회자 쫓겨나기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을 도운 2인자 김지선(44·여)씨의 권력이 막강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JMS 국제선교국 소속 간부 A씨는 12일 대전지법 형사 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JMS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에서 김씨의 교단 내 역할에 대해 진술했다.

정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3~4월께 홍콩 국적 여신도(29)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 정명석의 준유사간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도 국내외 ‘신앙스타’(결혼하지 않고 선교회의 교리에 따르는 신도들)를 선발·관리하면서 범행을 도운 혐의(강제추행 방조)로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씨는 김씨에 대해 “정말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고,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다”며 “정조은(김지선의 가명)의 방향에 대해 비판한 목회자가 쫓겨나기도 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원하는 이들을 추천하고 공적인 자리에 세웠으며, 정명석의 수행비서는 김씨가 직접 배치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봤다고 말했다. 다만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니며 소문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씨 변호인이 “김씨가 정명석의 범행을 막기 위해 여신도의 접근을 막으려고 차단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노력에 대해 들어봤느냐”고 묻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변호인이 김씨가 여성 수행원들에게 일부러 긴 바지를 입도록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수련원이 헛별이 위나 강한 데다 별로도 많이 쏘이며 다들 긴 운동복 바지를 입는다”며 성범죄를 막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실제로 맡았던 역할이나 지위가 알려진 것과 상당 부분 다르며 2인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이다.

/ 양희승 기자

##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명백한 허구”

9월 13일 개봉 가능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훈싸인 영화 ‘치악산’의 개봉을 막아달라는 지역 자치단체 등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예정대로 13일 영화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원주)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8일 심문에서 원주시 측은 “원



주 시민이 긍지를 느끼는 산에서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현대사회에선 문화적 인식이 발달해서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치악산’은 1980년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토대로 한 공포영화다.

/ 박지원 기자



## 철도노조 14일부터 총파업 광주전남 여객 운행률 62% 예상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총파업을 예고한 14일부터 18일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여객과 화물 운송에 차질이 예상된다.

12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철도노조 파업 기간 호남·전라·경전선 운행률은 평상시 대비 여객 62%, 화물 2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루 여객열차 운행 횟수는 호남·전라·경전선 합산 158회에서 98회로 축소된다.

가장 이용률이 높은 KTX고속열차의 경우 하루 운행 횟수가 78회에서 54회(69.2%)로 줄어든다. 화물열차 운행 횟수도 하루 29회에서 6회로 급감한다.

철도노조가 실제 파업을 하면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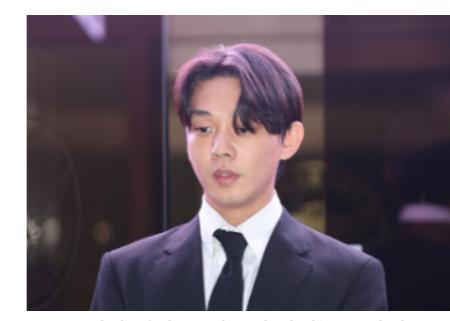
노조는 수서역을 기반으로 하는 SRT와 서울·용산역을 기반으로 하는 KTX의 분리 운영이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고 지적하며, 수서행 KTX 운행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경고 파업을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돌입하기로 했다.

가장 이용률이 높은 KTX고속열차의 경우 하루 운행 횟수가 78회에서 54회(69.2%)로 줄어든다. 화물열차 운행 횟수도 하루 29회에서 6회로 급감한다.

/ 권민웅 기자

## ‘마약 투약’ 유아인 검찰 소환…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영장 기각 후 마포서 나서는 유아인

모두 4천mL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캐타민·졸피뎀·미다졸립·알프리졸립 등 8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유씨에 대한 두 차례 피의자 조사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5월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올해 1월 유씨 등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던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모씨 등 공범도 수사하고 있다.

/ 노승만 기자

**posco  
INTERNATIONAL**

##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종합사업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더 밝고 더 따스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LNG사업 밸류체인 완성·



With POSCO



# 국내 대기업, 2년반 동안 신성장 스타트업에 4.3조 지분투자

리더스인덱스 분석…콘텐츠·엔터 및 2차전지 분야 각 1조원 이상 투자

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2년 반 동안 신성장 스타트업에 4조원 이상을 직접 지분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법인 지분투자를 가장 많이 한 분야는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였다.

1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54개사의 타법인 출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계열사 투자를 제외한 타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기업은 298개사로 조사됐다. 출자 금액은 취득가 기준 20조7천 701억원이었다.

이 중 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16조3천354억원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다. 간접 투자 대상 기업은 2천922개사였다. 직접 지분을 취득한 투자 대상 기업은 844개사, 지분출자 금액은 4조3천55



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접 지분을 투자한 대부분 기업은 스타트업이라고 리더스인덱스는 설명했다.

타법인 지분 출자액은 2021년 2조1천 225억원(투자 대상 330개사)에서 지난해 1조2천976억원(335개사)로 줄었다. 올해는 상반기만 1조1천42억원(179개사)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출자를 받은 844개사를 업종별로 보면 가장 출자액이 큰 분야는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였다.

2년 반 동안 대기업들은 이 분야 99개 기업에 1조1천415억원을 출자했다.

이어 2차전지 분야 64개 기업에 1조 416억원을, 우주·항공 분야 48개 기업에 4천770억원을 투자했다.

또 제약·바이오 분야는 4천370억원(173개사), 애플리케이션·플랫폼 서비스 2천906억원(18개사), AI·빅데이터 2천51억원(122개사) 등 순이었다. 2021년 이후 직접 타기업 지분출자를 가장 많이 한 기업은 네이버로, 63개 기업에 5천97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다음으로 타법인 지분출자를 많이 한 기업은 하이브였다. 하이브는 같은 기간 8개 기업에 4천376억원을 출자했는데, 대부분 올해 경영권 분쟁을 한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분 출자였다.

이어 출자 금액 기준 LG화학(3천737억원), SK텔레콤(2천694억원), 현대자동차(1천666억원), 크래프톤(1천663억원), 삼성전자(1천564억원), 현대모비스(1천282억원), CJ ENM(1천205억원) 등 순이었다.

/ 이형찬 기자



한화에어로, 글로벌 방산전시회 DSEI 참가

**한화에어로, 英 방산전시회 참가**

**최신형 'K9A2' 자주포 선봬**

**자동장전에 고무궤도 모델**

**세계최초 공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2~1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글로벌 방산 전시회 DSEI에 참가해 최신형 K9 자주포인 'K9A2'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15m<sup>2</sup> 규모 전시관에서 K9A2 자주포를 K10 탄약운반 차 등과 함께 '자주포 패키지'로 공개한다.

K9A2 모델은 탄약과 장약을 완전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어 분당 9발 이상 신속한 사격이 가능하다. 또 기존 스텔 궤도 대신 복합소재 고무 궤도를 장착해 진동, 소음이 줄어 안정적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A2를 통해 영국의 MFP(Mobile Fires Platform)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 장연철 기자

## 호텔신라·네이버, 멤버십 제휴 강화…면세부문 네이버쇼핑 입점

호텔신라는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네이버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멤버십 제휴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호텔신라는 협약에 따라 신라인터넷면세점 회원과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멤버십 결합 혜택을 강화한다.

오는 18일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신라인터넷면세점 구매 시 결제금액의 8%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

받게 된다.

호텔신라는 또 호텔 및 면세점 온오프라인 사업장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연동한다.

네이버를 통해 호텔신라의 면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네이버쇼핑 입점도 진행한다.

네이버쇼핑 입점 시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 누구나 네이버 쇼핑 페이지 내에서 신라면세점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다.

아울러 호텔신라는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호텔 및 면세 서비스 사업 혁신에 나설 예정이다.

호텔신라 TR부문 김태호 부문장은 "네이버와 AI 기술을 활용해 앞으로 사업 제휴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사업개발센터 한재영 총괄은 "멤버십, 여행, 페이, 쇼핑 등 차별화된 혜



호텔신라·네이버, 디지털 전환 가속화 맞손

택으로 양사 이용자의 멤버십 경험을 극대화하고, 서비스 편의성까지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노승현 기자

**명태 58%·고추 17%↑…추석 전 79개 품목 중 18개 수입가 올라**

**소갈비 33%↓·닭다리 8%↓·낙지 14%↓ 등 50개 품목은 하락**

추석 3주 전인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명태·고추 등 18개 품목의 수입 가격이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추석을 맞아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1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79개 품목 중 18개 수입 가격이 1년 전보다 올랐다. 지난해 추석 연휴 3주 전인 8월 11일부터 8월 17일 까지의 기간과 올해 추석 연휴 3주 전인 8월 30일부터 9월 5일 까지의 기간을 비교한 결과다.

농산물 42개 품목 중 12개가, 육산물 11개 품목 중 1개가, 수산물 26개 품목 중 5개가 각각 올랐다. 농산물 중에서는 고추류(냉동·16.6%), 참깨(12.7%), 김치(2.2%) 등의 가격이 1년 전보다 높았다.

축산물 중에서는 버터(12.7%)가, 수산물 중에서는 명태(냉장·57.5%, 봉장어(냉동·16.5%) 등이 상승했다. 1년 전보다 가격이 내린 품목은 50개였다.

들깨(-23.3%), 커피(생두·-15.9%), 소갈비(냉장·-32.5%), 닭다리(냉동·-8.3%), 오징어(냉동·-5.9%), 낙지(냉동·-13.6%), 주꾸미(냉동·-5.1%) 등이 떨어졌다. 무·밤·호박·가리비·조기 등 11개 품목은 분석 기간 내 수입되는 물량이 없었다.

관세청은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전까지 세 차례 주 단위로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입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내용은 관세청 수출입통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 문효성 기자

**국가유산 산업의 가치와 미래 가능성은…14~16일 경주서 산업전**

**문화유산 분야 신기술·정보 공유…관련 기관·업체 96곳 참여**



국가유산 보존, 안전·방재, 국가유산 수리·복원 등을 다루는 331개 홍보·전시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참가 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전시 공간을 선보인다.

연구원은 총 21개 전시 공간을 활용해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검색·활용할 수 있는 기술 등 최신 산업 흐름을 소개할 계획이다. 보존 처리·복원 기술 분야에서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과 디자인 특허 목록도 볼 수 있다.

행사 첫날인 14일에는 국가유산 산업의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국가유산 산업과 관련한 통계 개발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국가유산의 산업 육성 의미, 향후 정책 및 제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에는 국가유산 관련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을 위한 채용 박람회도 진행돼 관련 일자리와 산업 현황, 국가직무 능력표준(NCS) 특강 등을 들을 수 있다.

세계국가유산사업전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행사 기간에 현장에서 등록하거나 누리집(www.heritage-korea.com)에서 사전 등록하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다.

산업전 관람객 명찰을 소지하면 경주 대릉원 천마총, 동궁과 월지, 김유신장군묘, 포석정 등 경주 시내 주요 사적지 7곳과 궁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 신지호 기자

## AI 풀스택이면 가능합니다

기업마다 필요한 AI가 다른데,  
맞춤형으로 AI를 쓸 수 없을까?

KT의 AI 풀스택이면 가능합니다  
AI 전문 반도체를 만드는 리밸리온,  
산업별 맞춤형으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모래와 함께  
유연하게 쓸 수 있는 KT 클라우드로  
KT만의 AI 풀스택을 완성했으니까요

어떤 기업이든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AI  
KT가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꼭 맞춤 KT AI

DIGICO KT

LARGE AI

SOFTWARE MOREH

rebellions\_ HARDWARE

CLOUD

# 추석 연휴, 서울의 숲과 공원에서 즐기세요

## 17개 공원·숲에서 전통 놀이 등 가족행사



남산둘레길 야간산행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17개 공원과 숲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윷놀이와 제기차기, 땅따먹기 등 전통 놀이를 대부분의 공원에서 즐길 수 있어 서울을 방문한 여행객들도 즐기기 제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각종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평화의공원 장승마당에서는 소원등, 장명루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며 천체망원경으로 보름달을 관측할 수 있다. 월드컵공원과 평화의공원 일대를 전기차를 타고

둘러보며 도토리와 알밤에 대해 알아보는 '구석구석 가을산책'도 마련됐다.

남산공원 아외식물원에서는 차례상 위 열매를 매개로 추석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차례상 위 열매 이야기'가 운영된다. 남산 호현당에서는 조선시대 선비가 돼 한양도 성을 산책하는 '순성놀이'를 즐기며 소원을 빌거나, 한복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착용법을 익힐 수 있다.

추석맞이 특별 프로그램 이외 일반 전시·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서울의 야경을 만끽하고 싶다면 수요

일 오후 7시 남산공원을 찾으면 된다. 남산둘레길 야간산행이 이달 6일을 시작으로 11월1일까지 운영된다.

서울숲에서도 방문자센터 옆에 비치된 지도를 보며 공원을 탐방하는 '나도 서울 숲 탐험가' 프로그램이 열린다.

서울식물원과 마곡문화관, 문화비축기지 등에서는 추석 기간 기획전시가 진행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어린이대공원에서는 버스킹 등 문화예술공연을 즐길 수 있는 '월간대공원' 행사가, 유아숲 체험원에서는 '유아숲 가족축제'가 열린다. 하늘공원에서는 서울정원박람회와 연계한 목공 체험 프로그램 '2023 서울 목공한마당'이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parks.seoul.go.kr](http://park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가까운 공원에서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프로그램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행사마다 기간과 참여 방식이 달라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임준희 기자

## "빈껍데기뿐인 공항 이전 반대"…의성군민 150여명 군청서 집회

경북 의성군 비안면 소음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오전 의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빈껍데기뿐인 공항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좋은 건 대구에 다 빼앗기고 소음만 받을 수는 없다"며 "하루 수십수 백대의 전투기가 이착륙하면 소음과 공해에 시달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항·화물터미널 없는 공항은 주민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며 "공수표를 날리는 대구시는 공항 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공항 유치에 앞장선 의성군수는 물러가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비안면 주민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사태 해결 때까지 대구시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집회를 이어갈 계획



12일 오전 경북 의성군청 앞에서 비안면 화신1리 청년돌격대 소속 주민들이 신공항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이다.

경북 의성군 주민은 대구시가 지난 5일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대구 군 위군에 짓되, 의성군에 신공항 물류단지

를 조성해 두 지역에 있는 직통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하자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 한민수 기자

## 청주동물원 "갈비사자였던 바람이, 좋은 환경에서 잘 적응"



주방사장에 나와 있는 바람이

늑골이 드러날 정도로 빼빼 마른 몸 때 문에 '갈비사자'라는 안타까운 별명이 붙었던 수사자 바람이(19)가 새 보금자리인 청주동물원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청주동물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바람이는 더 나은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며 "기존 2마리의 사자와 합사를 목적으로 한 상호 간 마주보기, 체취 적응을 거쳐 주방사장 교차 방사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경남 김해의 한 동물원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이 사자는 지난 7월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지면서 바람이라는 이

름을 얻었다.

청주동물원은 사람으로 치면 100에 가까운 노령인 수컷 사자가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 이름을 지어주었다.

바람이가 생활하는 곳은 청주동물원 정상에 위치한 애생동물보호시설이다.

2마리의 사자가 생활하고 있던 곳으로, 1천75m<sup>2</sup> 면적의 공간이 실제 자연환경과 유사하게 조성돼 있으며 큰 나무들이 많고 바닥은 흙으로 돼 있다.

청주동물원은 2014년 환경부 서식지와 보전기관으로 지정됐다.

구조된 애생동물을 치료한 뒤 재활훈련을 시켜 자연으로 돌려보내거나 영구장애 등 자연 방사가 불가한 개체는 보호하고 있다.

청주동물원은 보유 중인 동물(68종 377마리)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메디컬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다.

/ 최형민 기자

/ 진성훈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 "제주 K4리그 축구단 창단…당장 고려하기 어려워"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내 K4리그(4부 리그) 축구단 창단 운영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12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축구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K4리그 축구단 신설을 제안한 이남근 교육의원의 질문에 예산 등의 문제로 "당장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오 지사는 "K4 구단을 유치하게 된다면 운영비는 최소한 6억원 정도가 들고 그 다음에 흥보비라든가 기타 지원비를 합치게 되면 12억원 정도로 추



오영훈 제주지사

전주시민축구단, 진주시민축구단 등 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K4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또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4리그는 세미프로 축구 대회로, 2020년도에 강원, 거제, 전주 등 13개 팀으로 출범·운영돼 프로축구 1부, 2부 리그와 K3, K4 하부리그간 승강제로 정착시키기 위한 리그다.

/ 임현수 기자

## "며느리 대접해야 하니 참 불행한 시대" 창원시의장 발언에 비판

### 여성단체 "성불평등 발언"…의장 "여성지위 향상됐다며 재밌게 한 얘기"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이 최근 열린 양성평등주간 행사에서 "며느리한테 대접해야 하니 참 불행한 시대"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여성단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12일 경남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해당 발언은 지난 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8회 창원시 양성평등주간 및 여권 통문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나왔다.

여성단체연합이 행사 참석자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축사에 나선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은 "여성 상위 시대라고 생각한다", "아들 내외가 친정 집 근처에 사는데 시부모인 나는 불편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 통화

에서 "우리 집사람은 시어머니 모시고 밥을 다 해드렸는데 며느리한테 대접해야 하니 참 불행한 시대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김 의장은 이 직후에 "농담이었다"라고 말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성인지 감수성의 언행은 고스란히 정책, 제도에 반영될 것이라 판단돼 염려스럽다"며 "김 의장은 성차별, 성불평등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 통화에서 "여성의 지위가 그때보다는 한참 향상된 것 같다"는 취지로 재미있게 한 이야

기"라며 "문제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성단체는 이밖에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종 공식 석상에서 창원시 고위 공무원 등으로부터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엿보기 위해 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으로는 "이제 우리 사회가 평등해졌으니 성별영향평가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 또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과 관련해 '젠더',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제외하라" 등을 꼽았다.

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조규돈 기자

**SK telecom**

**T roaming**

**혜택이 넘치는  
가족로밍의 탄생**

가족 중 1명만 baro 요금제 가입하고 3,000원만 추가하면  
더 넉넉해진 데이터를 온 가족이 공유하고 온 가족 baro 통화, 문자 무료

**더 넉넉해진 baro 요금제 혜택**

- 혜택1. 전 세계 188개국에서 내폰 번호 그대로
- 혜택2. baro 통화, 문자 무료
- 혜택3. 0청년 요금제 가입 고객님 상시 50% 할인

## 김포시, '지옥철' 골드라인 민간위탁 5년 연장 재추진



경기도 김포시가 앞서 시의회 반대로 불발됐던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의 민간 위탁 연장을 재차 추진한다.

12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김포시는 최근 시의회에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을 제출했다.

시는 지난 7월에도 유사한 동의안을 냈으나 야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일부 내용을 수정한 안건을 만들었다.

동의안에는 내년 9월 위탁 기간 종료를

해 철도를 운영했으며 내부 용역과 위원회 검토 과정을 거쳐 직영 전환 대신 위탁 연장 방침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에는 꼭 동의안이 통과돼야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와 인수 인계 등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시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시의원들은 앞서 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요구한 노동자·시민 의견 수렴과 문제점 보완 등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 이달 시의회 회기 때 안건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도시환경위원장)은 "이번에 김포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놓고 시의회의 주문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일단 동의안의 명칭과 사업비 정도에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의원들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둔 김포골드라인 관리운영·여객운송 업무를 민간업체에 5년 더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그동안 발생한 안전사고 등 운영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사업비를 기준 안의 1천379억원보다 271억원 더 많은 1천65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9년 철도 개통 이후 서울교통

공사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에 위탁

/ 백도형 기자

## 인공지능이 충남소방본부 119 신고 접수 돋는다

충남소방본부는 인공지능(AI) 119 스마트 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음성 인식에 기반해 신고 내용을 문자로 표시, 119종합상황실 접수 요원이 재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돋는 기술이다.

신고 접수와 동시에 신고자가 언급한 주소와 지명, 건물명 등을 분석해 긴급상황이 발생한 장소와 출동 경로를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자동으로 표시한다.

도 소방본부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축적된 음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민의 양과 사투리, 지명 등을 심화 학습해

인식률을 향상했다.

앞으로도 119 신고 음성 인식률을 높이는 한편 재난 대응 매뉴얼도 추가하는 등 2025년까지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부정확한 신고로 접수 요원이 신고자에게 반복적으로 되묻는 시간을 줄여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 소방본부는 기대한다.

김연상 충남소방본부장은 "긴급상황 발생 때 더욱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 것"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한 디지털 소방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손현수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일상, 당신답게**

**지키다, 삼성화재답게**

강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성 실험\_기업안전연구소

**당신의 일상은 변화의 연속이니까  
우리는 먼저 준비하고, 미리 대비합니다.**

교통사고 'Zero' 사회를 만드는\_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재해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_기업안전연구소  
빅데이터 기반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_헬스케어서비스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 성남시, 2026년까지 공공도서관 3곳 추가 조성…22곳으로 확충

경기 성남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수내동·대장동에 공공도서관 3곳을 신규 개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3곳이 추가 설치되면 성남시 내 공공도서관은 현재 19곳에서 22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등도서관은 806㎡ 규모로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설치돼 내년 5월 개관한다. 문현정보실과 어린이열람실을 갖춘다.

2025년 5월 개관 목표인 수내도서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 총면적 7천16㎡ 규모로 수내 근린공원 내에 들어선다.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메이커스페이스, 900석 규모 열람실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장지구 도서관은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오는 11

월 착공한다.

지하 2층 지상 2층 총면적 5천121㎡ 규모로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용자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내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진구 수진1동·태평3동, 중원구 상대원3동 재개발구역에도 도서관 조성 세부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개관한 지 20년이 넘은 기존 중앙·수정·중원도서관의 경우 도서 자료 중심의 폐쇄적인 공간을 유동 공간 재배치와 어린이열람실 확장, 식당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친화적인 소통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 권중호 기자

## 천안시, 수도권전철역 4개 신설 모색…청수·구룡·복모·신부역

### 청수역 외 3개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착수보고회

일시 2023.9.12.(화) 10:00~11:30 장소 중회의실(7층)



보고회에서 발언하는 박상돈 시장(왼쪽). 오른쪽은 신동현 부시장

충남 천안시는 12일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대비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전철역 4개를 신설하

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박상돈 시장 취임 이후 두정역 북부 개찰구 개통, 천안역 사증·개축 사업 및 부성역 신설사업 확

정 등 철도 대중교통과 광역교통 개선을 추진해 왔다.

천안역의 경우 총사업비 800억원 규모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부

성역은 400억원 규모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10월 중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수도권 전철 주변으로 도

시개발과 인구 증가로 전철역 신설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용역에서 신설을 검토했는 역시는 성한 종족장 이전 후 천안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복모역', 천안역과 두정역 사이 '신부역',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구룡역'이다.

시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및 주변 개발 계획에 맞춰 전철역 추가 신설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안역 수도권 전철역은 성환·직산·두정·천안·봉명·쌍용역 등 6개가 있으며, 부성역은 사업이 확정돼 추진 중이다.

/ 양희진 기자

## 부천시 '해피 하우스' 사업 추진…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핸섬 해피 하우스' 업무협약

경기도 부천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소외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핸섬 해피 하우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12

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 홀몸노인, 장애인 등이다.

부천시는 소외계층이 사는 집의 도배와 장판을 바꿔주고 단열 작업으로 에너지 효율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최근에는 대한건축사협회 부천지역건축사회와도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이달 안에 신청자 중 지원 대상을 선별해 주택 보수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살기 좋은 주거환경은 삶의 질을 높인다"며 "핸섬 해피 하우스'가 부천을 대표하는 주거복지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동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위판장 방사능 검사 과정 현장 점검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12일 오전 5시 삼척수협 수산물 위판장을 방문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용 시료 수거 과정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정일섭 글로벌본부 부장과 최종훈 삼척시 부시장 등이 참석해 방사능 검사용 시료 수거를 위한 시료 손질부터 포장 및 운반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홍보 등의 활동을 하며 어업인들을 격려했다.

산물 소비 촉진 홍보 등의 활동을 하며 어업인들을 격려했다.

수산업계 종사자들은 "청정 강원도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12일 오전 5시 삼척수협 수산

물위판장을 방문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용 시료 수거 과정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정일섭 글로벌본부 부장과 최종훈 삼척시 부시장 등이 참석해 방사능 검사용 시료 수거를 위한 시료 손질부터 포장 및 운반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홍보 등의 활동을 하며 어업인들을 격려했다.

한국농총, 2030부산엑스포 유치 적극 지원



한국농총이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12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김동명 한국농총 위원장과 전국 17개 시도 지역본부 의장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접견하고 2030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총은 부산의 엑스포 개최 역량과 열정을 홍보하고 국제노동운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2030엑스포 부산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103만 한국농총 조합원이 힘을 모아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열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김 위원장 등은 이후 2030부산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부산항 북항 일대를 둘러본다.

/ 채승준 기자

## 항저우 가는 태극전사 중 최다 AG 메달리스트는 다이빙 우하람

해머던지기 이윤철 6회 연속 출전…부녀·형제·자매 출전도 ‘눈길’

오는 23일 개막하는 항저우 하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중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리스트는 수영 남자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25·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가 12일 소개한 이번 대회 이색 선수 자료를 보면, 우하람은 2014 인천 대회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3개,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은메달과 동메달 2개씩을 수집해 총 8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하람은 항저우에서 아직 캐지 못한 금메달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

최다 금메달리스트는 5개씩 수확한 한국 남자 펜싱의 얼굴 구본길(34·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이클의 나이름(33·삼양사)이다.

구본길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우하람이 19일 일본 후쿠오카현 수영장에서 열린 2023 세계수영선수권 다이빙 3m 스프링보드 예선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사브르 개인전 4회 연속 우승을 정조준한다. 구본길이 개인전과 단체전을 훨씬 앞서나온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를 7개로 늘려 역대 한국인 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리스트로 우뚝 선다.

5년 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개인 도로, 도로독주, 단체추발, 매디슨 등 도로와 트랙의 경계를 넘나들며 금메달 4개를 거머쥔 나이름도 추가 금메달을 노린다. 아시안게임 최다 참가 선수는 육상

남자 해머던지기의 이윤철(41·음성군청)로 2002 부산 대회 이래 6회 연속 아시안게임 최고 축제를 즐긴다.

최고령 선수는 브리지 종목에 출전하는 임현(73), 최연소 선수는 체스 종목의 김시랑(11)으로 둘의 나이 차는 62세에 달한다.

한국 야구대표팀과 요트의 하지민(34·해운대구청)은 구본길과 더불어 대회 4연패에 도전에 나선다.

클라이밍 종목의 서종국 감독과 서채현(19·노스페이스 클라이밍팀·서울시청)은 부녀 관계이며, 사이를 선수 신동인·이주미(부부), 소프트볼의 배내혜 코치와 배유가(자매), 다이빙의 김영남과 김영택(형제), 육상의 한세현과 한두현(쌍둥이 형제)도 가족의 이름으로 항저우를 빛낸다. / 최준용 기자



2019년 2회 프리미어12에서 준우승한 한국 야구대표팀

### 야구 국제대회 프리미어12, 내년 11월 개최…결승전은 도쿄동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기준 세계 랭킹 상위 12개국이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겨루는 제3회 프리미어12가 5년 만에 다시 열린다.

WBSC는 12일(한국시간) “2024년 가장 중요한 국제 야구대회인 프리미어12가 내년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전체 12개 출전국을 6개씩 둘로 나눠 A조(미주 대륙·장소 미정)와 B조(대만 타이베이)가 각각 풀리그를 치르고, 조상위 2개 팀은 슈퍼 라운드 출전권을 얻는다.

슈퍼 라운드 1·2위 팀은 프리미어12 결승전에 출전하고, 3위와 4위 팀은 동메달 결정전을 벌인다.

A조는 2024년 11월 10일부터 14일 까지 일정을 진행하고, B조는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개막전장소는 11월 13일 일본 나고야 돔이다.

일본 도쿄에서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슈퍼 라운드가 벌어진다. 결승전과 동메달 결정전은 11월 24일 개최된다.

리카르도 프라카리 WBSC 회장은 “우리의 대표 행사인 프리미어12의 다음 대회 날짜와 장소가 공개된 건 전 세계 야구팬에게 기쁜 일이다.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대회가 성공했고, 우리는 세 번째 대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일본프로야구(NPB) 커미셔너는 “NPB가 야구의 매력과 함께 세계를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WBSC는 국제 대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올해 11월에는 한국과 일본, 대만, 호주가 출전하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APBC)을 연다.

프리미어12 초대 챔피언인 한국은 내년 3회 대회에서 9년 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2015년 열린 첫 대회에서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준결승에서 9회 대역전승을 거둔 뒤 결승에서 미국마저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 2회 대회는 결승에서 일본에 패해 준우승했다.

/ 김규현 기자

## “맘껏 연습할 곳이 없다” 광주FC 연습구장 불만 커

기존 시설 3곳, 대관 어렵거나 시설 하자로 이용 어려워



볼 소유하는 광주FC 이민기

광주FC 프로축구 구단이 화려한 공격 축구와 9경기 무패 기록으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열악한 훈련 시설이 함께 조명되고 있다. 시민구단인 광주FC는 구장 3곳을 전전하며 연습 중인데, 잔디와 배수 문제로 이마저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워 별도 전용 연습구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광주FC에 따르면 선수단은 광주축구센터, 광주축구전용구장(옛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광주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을 주 1~2회씩 번갈아 대관해 훈련에 쓰고 있다.

이 중 축구센터는 2019년 개장 때부터 비가 많이 내리면 배수 문제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잔디가 썩으면서 악취까지 심해졌다. 축구전용구장과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은 천연잔디

보호 문제로 대관 횟수가 주 2회 안팎으로 제한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주 5~6일 잔디 구장 훈련을 희망하는 선수들은 “운동장을 마음껏 쓰지 못해 아쉽다”며 경기 후 인터뷰 때마다 입을 모았다.

이정호 광주FC 감독은 최근 울산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광주FC의 환경에 대해 선수 등이 (성적으로) 보여줬으니 시에서도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광주FC 팬들도 홈 경기에서 ‘무늬만 프로구단, 훈련 환경은 아마추어’라거나 운동장을 지어달라는 현수막을 걸고 전용 연습 시설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와 구장을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체육회는 내년 상반기 중 축구센터 보수 공사를 완료하면 이용난이 해소될 것이라며 연습구장 신설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다.

29억 2천만원을 들여 축구센터를 건립한 광주시는 내년 4월 말 또는 5월 초까지 다시 20억원을 들여 배수로 공사와 잔디 양성을 마칠 방침이다. 관중석이 흔들린다는 문제가 제기된 축구 전용구장도 다음 달 초까지 보수공사를 한다.

강광호 광주시체육회 월드컵팀장은 “축구센터는 기초공사가 잘못돼 문제가 생겼는데 우선 체육회가 공사한 뒤 시에서 최초 공사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3곳 모두 보수를 마치면 연습용 대관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은 은메달

1개를 따내 94개 출전국 중 공동 18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 윤희성 기자

## 세계주니어수영선수권 은메달 김준우 귀국

한국 수영 사상 처음으로 세계주니어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따낸 김준우가 축하 인사를 받으며 귀국했다.

김준우는 11일 오후 주니어 대표팀 동료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귀국 후 김준우는 대한수영연맹을 통해 “경기에만 집중하고 좋은 경험할 수 있게 정신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황성태 감독님과 김병길, 이성철 코치님께 감사하다”며 “메달 획득 이후 받은 관심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기분은 매우 좋다. 다가오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준우는 10일(한국시간) 이스라엘 네타냐에서 열린 2023 세계주니어선수권 남자 자유형 1,500m에서 15분01초94로 역영해 2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은 은메달 1개를 따내 94개 출전국 중 공동 18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 윤희성 기자

## h point



### 올해로 6년째, 가장 행복한 멤버십

머물수록 쌓이는 즐거움, 현대백화점그룹 h point

#### 올해의 브랜드 대상 멤버십 부문 6년 연속 수상

주최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 주관 한국소비자포럼·한국경제신문



# 도파민 솟는 언니들의 춤 싸움…돌아온 ‘스우파’, 흥행몰이 시동

글로벌로 판 키운 스우파2…“과감하고 바람직한 차별화 전략”

한층 규모를 키워 돌아온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2’(이하 ‘스우파2’)가 다시 한번 거센 춤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12일 방송에 따르면 엠넷 공식 유튜브 채널 ‘더춤’에 개제된 ‘스우파2’ 영상 클립 누적 조회수는 방영 2주 만에 1억뷰를 넘어섰다.

시청률도 1.5%로 출발해 2회 2.2%, 3회 2.6%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주 시청자층이 TV보다는 OTT(동영상 스트리밍)에 더 익숙한 젊은 세대이다 보니 시청률 기록 자체는 높지 않지만, 신드롬급이었던 ‘스우파’ 시즌1 최고 시청률이 2.9%였던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다.

‘스우파2’는 방송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화려한 댄스크루 라인업은 기대를 불러 모았지만, ‘전편만 한 속편은 없다’는 소포모어 징크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스우파’의 스핀오프 격인 ‘스트릿 걸스 파이터’, ‘스트릿 맨 파이터’ 등이 모두 ‘스우파만 못하다’는 평을 받으며 퇴장한 가운데, 징크스를 깨기 위해서는 전편들을 넘어설 확실한 차별점을 내세우는 것이 관건이었다. ‘스우파2’는 글로벌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2’

로 판을 넓히며 승부수를 뒀다.

영미권 댄서들의 프로젝트 크루인 챔리퍼블리과 일본 댄스 크루 초바��이 함께 색다른 매력을 불어넣는다. 챔 리퍼블리의 리더인 커스틴은 가수 리한나, 저스틴 비버, 제니퍼 로페즈 등의 유명 팝스타 안무에 참여한 ‘월드클래스’고, 초바킬의 리더 아카넨도 일본을 대표하는 안무가로 손꼽히는 ‘댄서들의 연예인’이다.

국내 댄스 크루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원밀리언 수석 안무가’ 리아킴과 갖가지

댄스 배틀을 휩쓴 27년 차 배틀러 베이비슬리가 심사위원이 아닌 참가자로 출연하고, 그룹 에스파의 ‘디글춤’ 창시자인 바다를 비롯해 요즘 내로라하는 트렌디한 댄서들이 총출동했다.

당당한 자신감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력을 뽐내는 출연진의 ‘걸크러시 매력’은 이번 시즌에서도 통했다. 입이 절로 벌어지는 춤 실력으로 시선을 불들고,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으로 시청자들을 경쟁에 더욱 몰입하게 만든다.

뉴질랜드 유명 댄스 크루 로열페밀리의 유일한 아시아계 댄서 출신인 링은 세계적인 퍼포머지만, 배틀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첫 배틀에서 그는 배틀 영상으로 조희수 1천만 회를 넘어 ‘천만세리’로 불리는 ‘배틀 강자’ 세리를 지목한다.

시청자들은 “건강한 자존감이 엿보여서 멋있다”, “사족 없이 오로지 자기만의 춤을 보여줘서 좋았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자부심까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 “코어와 균형이 완벽해서 넋을 놓고 봤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 재구성된 심사위원 라인업도 호평을 끌어내고 있다.

‘스우파2’에는 지난 시즌에 ‘프라우드 먼’ 크루의 리더로 참여했던 모니카, 그룹 몬스타엑스의 셔누가 파이트저지를 맡았고, 세계적인 댄스 크루 킴자즈(KINJAZ)의 마이크송은 스페셜 저지로 출격했다.

심사평이 전문적인 분석보다는 개인적인 감상 주제라는 논란이 이어졌던 ‘스우파1’이나 ‘스万博’와는 달리 이번 시즌의 날카로운 심사평은 대중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 이은정 기자



## SKT 메타버스 플랫폼서 가상 걸그룹과 진짜 아이돌 ‘콜라보’

SK텔레콤[017670]은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를 통해 가상 걸그룹 ‘이프랜디스’와 4세대 K팝 보이그룹 ‘크래비티’ 리더 세림의 콜라보레이션 신곡 ‘이프 유(if YOU)’를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프랜디스’는 지난해 말 데뷔한 메타버스 걸그룹으로 가온, 나라, 다음 등 3명의 가상 아이돌로 구성돼 있다. ‘크래비티’ 세림은 직접 랩 메이킹에 참여해 ‘이프랜디스’와 함께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창작한 첫 아이돌이 됐다.

SKT 양맹석 메타버스CO 담당은 “이프 유’는 현실 세계의 보이그룹이 가상 세계의 걸그룹과 꼭 제작과 피처링을 함께한 최초 사례”라며 “이프랜드는 앞으로도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새롭고 색다른 콘텐츠를 지속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남유정 기자

## 임영웅 콘서트, 무대 객석으로 감싸는 ‘360도형’으로 즐긴다



올 하반기 최고 기대되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꼽히는 가수 임영웅의 전국투어 서울 콘서트 무대가 일반적인 일(一)자형이 아닌 객석으로 감싸는 ‘360도형’으로 설치된다. 티켓 예매처 인터파크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영웅 콘서트 객석 배치도를 공개했다.

배치도를 보면 서울 콘서트가 열리는 올림픽경기장 KSPO돔(체조경기장) 정중앙에 ‘ㅅ’자형 무대가 들어서고, S~VIP석 객석들이 이를 빼곡하게 둘러싼다. 통상 일반적인 일자형 무대는 정면 방향으로만 관람이 가능하지만, ‘360도형’ 무대는 마치 원형극장 가운데를 내려다보는 듯한 관람이 가능해 몰입감이 배가된다. 이 같은 형태는 무대 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형 무대보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관객을 들일 수 있다. 이에 KSPO돔에서 이 같은 ‘360도형’ 무대는 그간 방탄소년단(BTS)과 아이유 등 대형 가수들이 선보인 바 있다.

임영웅은 다음 달 27~29일과 11월 3~5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대전, 광주에서 콘서트를 연다. 서울 콘서트 예매는 오는 14일 오후 8시로 치열한 예매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 흥연기 기자

## 이문세, 자선 행사 ‘숲속 음악회’…“17집 음반 작업 중”



가수 이문세가 지난 9일 강원도 평창에서 자선 음악회 ‘이문세의 숲속 음악회 – 열한 번째 이야기’를 열었다고 소속사 케이문에프엔디가 11일 밝혔다.

‘이문세의 숲속 음악회’는 금과 별이 보이는 작은 공연장에서 그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소규모 야외 공연이다. 2003년 처음 열린 이후 올해로 20년을

맞은 자선 행사다.

이문세는 “현재 17집 음반 작업과 내년 봄부터 시작할 새로운 공연을 준비 중”이라며 “올해 유일하게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는 공연이 ‘숲속 음악회’라고 말했다.

공연 도중에는 후배 가수 겸 배우 정은지가 게스트로 등장해 이문세와 ‘벗 속에서’를 드uet으로 열창했다.

이문세는 “정은지가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동안 밝고 건강하게 살아온 좋은 에너지가 느껴져서인듯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사랑받는 가수 이자 배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문세는 다음 달 7일 ‘숲속 음악회’ 2회차 공연을 연다. / 임윤성 기자

##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http://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KDB산업은행

K관광의 랜드마크

K금융의 랜드마크

대한민국 산업의 신성장 동력, K-관광  
KDB산업은행이 한국방문의 해를 응원합니다

금융으로 세상을 ●롭게

Shinhan

## 2023년도 보이스피싱 예방 능력 시험 신한은행 지켜요 영역

제2교시

1. 다음 중 계좌 이체 시 혹시 모를 피싱을 예방하는 신한은행의 보안 서비스는?

- ① 간편이체 서비스
- ② 즉시이체 서비스
- ③ 치연이체 서비스
- ④ 이체정지 서비스

2. 각 문항에 보고 OX를 맞춰보세요

- ① 문자(카톡)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해서 확인한다 (X)
- ② 정부기관(금감원)이라며 이체를 요구해도 절대 협조하지 않는다 (O)
- ③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3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문자가 와서 바로 보내주었다 (X)
- ④ 계좌번호 유출만으로는 피싱에 당할 일 없다 (X)

3. 가족들만 알 수 있는 암호를 미리 정해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 피는 물보다 진하다.? ]  
**우리 가족 암호 만들기**

**신한은행  
'지켜요'에서  
보안 점검이  
시궁래 보임!**

**SOL 지켜요**

김신한님  
보안점수가 너무 낮아요.  
점수를 올려 보안 수준을 높여주세요.

보통  
위험  
16점  
유발  
내 보안점수 올리기

**보이스피싱 예방 플랫폼 신한은행 '지켜요'에서 보안 점검을 통해  
보안점수도 올리고 피싱 범죄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지켜보세요**

**SOL 보안 서비스 이용**      **피싱 문자 사례 구독**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보이스피싱 피해자 300억 지원 및 예방사업을 금융감독원, 신한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합니다**

대상 : 피해자 중 취약계층 우선 선별 지원(전체 은행 고객 대상)  
금액 : 300억 (연간 100억 원씩, 3년간 지원)

상세내용 : -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비 지원  
              -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및 보험 제공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8000)에 문의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3-14203-1호(2023.09.11~2024.09.10)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